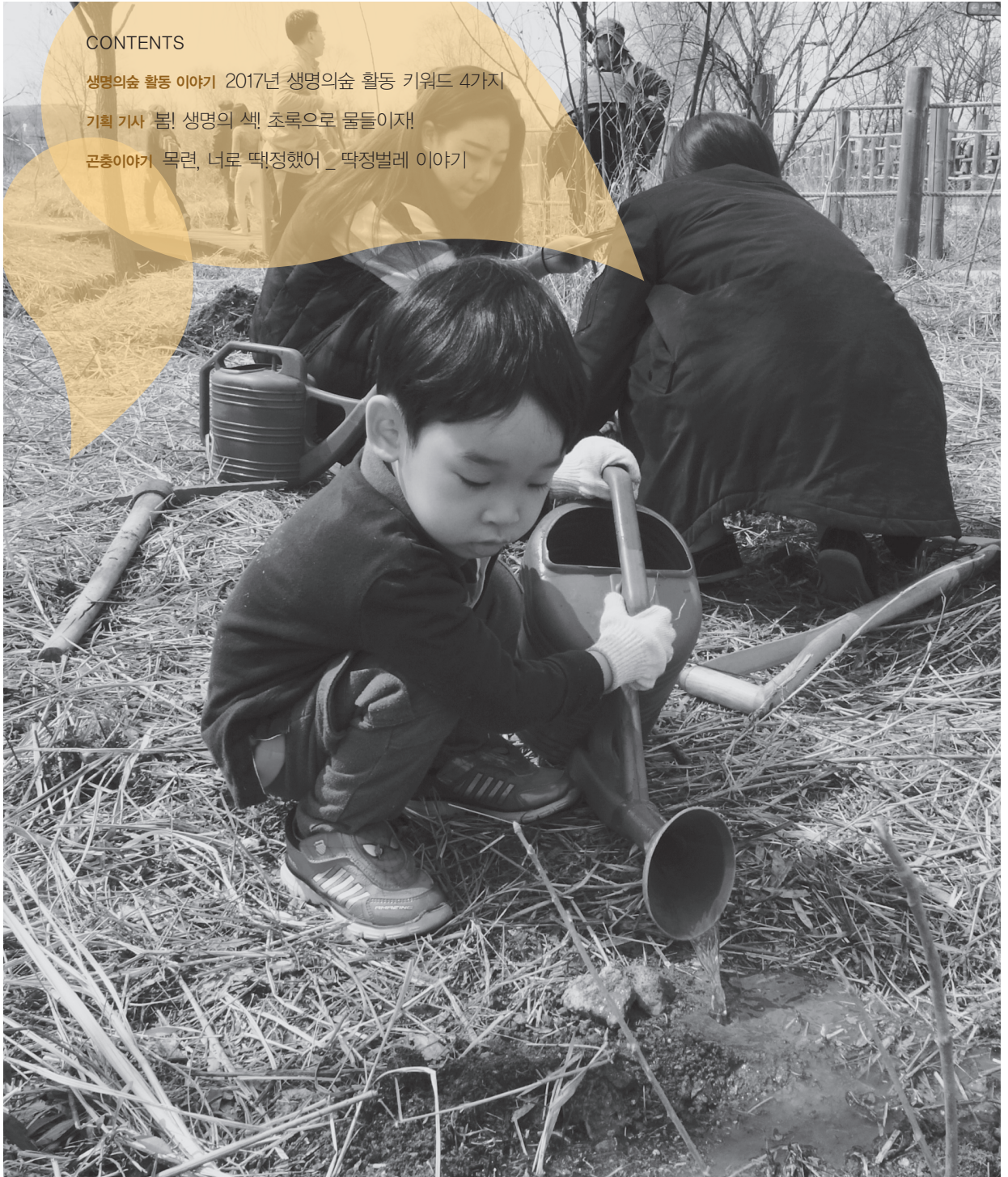


CONTENTS

생명의숲 활동 이야기 2017년 생명의숲 활동 키워드 4가지

기획 기사 봄! 생명의 색! 초록으로 물들이자!

곤충이야기 목련, 너로 딱정혔어 _ 딱정벌레 이야기





동네 뒷산에서 우연히 히어리 군락지를 발견했다.

3~4월에 노란 꽃송이가 종 모양처럼 여러 개 매달려 피는데 바람이라도 불면 맑은 종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히어리의 꽃말은 '봄의 노래'이다.

히어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이다.

멸종위기 식물들은 깊고 깊은 큰 산속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내가 사는 곳에서도 만나 볼 수 있구나...

새삼 놀랍기도 하고 이제부터 산책길에 들러 히어리를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2017년 새봄, 히어리 꽃이 들려줄 봄의 노래를 기대해본다. 🌸🌸🌸



마스터 가드너 정미나 회원 도시숲 활동가 박광민 회원

서울시로부터 표창장 받던 날

모처럼 햇살이 눈 부셔 오는 봄을 실감했던 2월 27일, 서울시청에서 '꽃 피는 서울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생명의숲과 함께 하고 있는 정미나 회원과 박광민 활동가가 수상자로 지목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정미나 회원

정미나 회원은 지난해 5월, 본 소식지에서 회원인터뷰로 회원님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을 아름다운 정원문화를 나누는 사람, '정원 미화 나눔'이라고 소개하던 분이지요. 생명의숲과는 13년 차 회원으로 먼저 인연을 맺고 있으며, 도시숲 활동의 가드닝 전문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광민 활동가

28일,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_노숙인가드닝 활동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4시간씩, 용산 가족공원에서 10명의 노숙인과 함께 진행된 가드닝 프로그램. 어색함과 걱정으로 시작된 28일 동안 노숙인들은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교육을 받으며 가드너가 되어갔습니다.



정미나 회원에게는 편견이 사라지는 시간이었으며, 노숙인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손길로 자라나는 식물을 보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5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살자'라고 말하고, 어린 나이에 노숙을 선택한 이가 '할 수 있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8일간 새벽을 깨우며 노숙인들과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낸 정미나 회원, 박광민 활동가. 그 노고를 인정받아 이번 '꽃 피는 서울 표창장'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요. 생명의숲 회원님들도 많이 격려해주시고 축하해주세요. 🌱






2017년, 생명의숲 활동 키워드 4

질 · 협업 · 홍보 · 시민력



2016년 생명의숲은

14개 활동, 31개 프로그램을 통해 361개의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와  17,194명의 시민에게
숲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10개 모임, 448명의 시민 활동가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331종 50,640본의 식물을 5ha(50,000m²)에 심고, 97.2ha(972,413m²)의 숲을 가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회원활동, 정책활동, 연대/협치 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 홍보활동을 하여 조직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
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활동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2017년 생명의 숲이 지향해야 할 활동의 주요한 키워드로 질(quality), 협업(collaboration),
홍보(PR-public relations), 시민력(citizenship)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활동의 질 Quality

시민단체의 활동은 상징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프
로그램, 시민활동가의 모든 활동, 생명의숲이 조성하고 가꾸는 모든 숲은 양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실행,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시
민활동가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활동 속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숲을 새롭게 해석하고 활
동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협업 Collaboration

시민단체의 활동은 수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며, 관계는 협업과 같
등으로 드러납니다. 생명의숲은 갈등보다는 대안 중심의 사고를 실천하는 활동 특성 때
문에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중요한 활동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
업 · 정부와의 협업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활동의 뿌리가 되는 영역 간의 협업, 즉
활동가 · 시민활동가 · 전문가의 협업, 시민단체 간의 협업 등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발
전시켜갈 예정입니다.



홍보 PR-public 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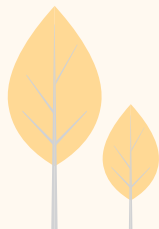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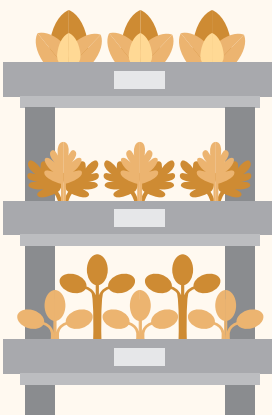
생명의숲이 하는 활동에 비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는 말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내가 후원하는 생명의숲이라는 단체가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홍보는 시민단체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업과 정부처럼 홍보를 위해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생명의숲은 이슈 중심의 활동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발신되는 정보들이 밋밋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NS 등 과거보다 다양한 홍보매체의 발전과 시민들의 숲을 향한 다양한 감성과 욕구는 새로운 기회일 것이며, 이를 활용해 시민들과 감성적 소통을 시도한다면, 생명의숲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변화를 알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력 Citizenship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사회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의식과 시민들의 왕성한 활동력은 시민단체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숲은 정부 · 기업 · 전문가가 함께하는 파트너십 단체의 특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생명의숲의 시민력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전문성 기반의 정부 · 기업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장점이 있었고 아직도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숲 운동의 특성을 이렇게 묶어두면 우리의 활동을 수직적이며 시혜적인 활동으로 한정할 우려가 높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시민의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시민이 지닌 재능이 사회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버전의 생명의숲 운동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글. 사무처장 유영민



봄! 생명의 색! 초록으로 물들이자!

글. 백선길 회원기자 kil35h@naver.com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새 생명이 앞 다투어 싹을 틔우고 제 몸을 살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계절 봄이 찾아왔다.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 피부로 느껴지지만, 마음은 이미 꽃피는 춘삼월! 설레는 봄이다.

이 봄, 최근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식목일을 옮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나무를 심고, 그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다.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고정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숲은 홍수를 조절하고 공기와 수질을 정화하는 등 각종 기상재해를 완충하는 기능과 더불어 우리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숲의 많은 나무는 그 속에 사는 많은 생명체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과 서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삶과 문화가 함께 한다.

6.25 한국 전쟁 이후, 우리의 황폐한 산림은 그동안 전 국민의 노력으로 많이 회복 되었으나 문명의 발달은 도시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반면 녹지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무를 심자!

나무심기 좋은 계절이다. 아파트 사이사이 실개천이 흐르고 나비와 새들이 함께 하는 봄을 맞이하자!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질적인 변화도 시도해 보자. 최근 들어 빌딩 벽과 옥상을 녹화한다든지 공공 주차장을 잔디로 포장된 곳을 흔히 본다. 초록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가치를 소중히 여겨 이 땅의 과도한 열을 식히고 다양한 생명이 함께 숨 쉬는 아름다운 초록으로 가꾸자. 🌱🌱

올바른 나무심기 방법 (출처: 산림청)

1. 심을 나무의 크기에 알맞은 구덩이를 조금 넉넉하게 판 후, 겉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 놓고 돌, 낙엽 등을 가려냅니다.
2. 부드러운 겉흙을 먼저 넣고 묘목의 뿌리를 잘 펴서 곧게 세운 후 겉흙부터 구덩이의 2/3가량 채웁니다.
3. 구부러진 뿌리가 펴지도록 묘목을 살며시 위로 잡아당기면서 밝아줍니다.
4. 나머지 흙을 모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낙엽이나 풀 등으로 덮어줍니다.
 - 묘목이 굽거나 뿌리가 구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 구덩이가 알아서 뿌리가 구부러지고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 비탈진 곳에 심을 때는 덮을 흙을 비탈지게 하지 말고 수평으로 합니다.



목련, 너로 딱~정했어!

딱정벌레,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다양함

* 곤충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종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이다. 그 많은 곤충 무리 중 1/3에 해당하는 딱정벌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딱정벌레는 딱정벌레과에 딸린 곤충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딱정벌레류는 벌이나 나비보다 먼저 지구 상에 등장해서 식물의 꽃가루받이 매개를 바람에서 곤충으로 진화하게 된 계기를 만든 곤충이다.

* 그럼, 이 딱정벌레가 도와주는 식물은 누가 있을까?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봄’하면 떠오르는 목련이다. 목련은 원시식물이라 한다. 많은 학설 중 하나가 목련의 꽃가루받이를 도와주는 매개체가 딱정벌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딱정벌레는 벌이나 나비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 상에 등장을 했던 곤충이기 때문에 지금도 목련은 딱정벌레의 도움을 받는다. 딱정벌레는 대부분 등에 딱딱한 겹질로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

* 딱정벌레 하면 어떤 종류가 생각날까? 사슴벌레, 소뿔구리, 풍뎅이, 장수풍뎅이 등 여러 종류가 떠오른다. 오늘은 흔하지 않아서 귀한 비단벌레를 이야기하고 싶다. 얼마 전 TV

역사프로그램에서 신라 고분에서 나온 옥충이란 단어를 들었다. ‘옥충? 그럼 곤충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 비단벌레를 말하는 것이었다.

* 비단벌레과는 우리나라에 87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 한 종류인 비단벌레는 날개 겹질이 아름다워서 한자로는 옥충(玉蟲)이라고 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개 겹질은 공예 장식품 소재로도 사용됐는데, 방충에 나온 신라시대 고분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말안장 가리개가 바로 그 사례이다. 비단벌레는 멸종위기종 2급이면서 ‘천연기념물496호’인데 2009년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서식지가 발견되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한다. 그동안은 전남 해남 두륜산과 완도 일부 지역에 있는 것이 알려져 왔다. 멸종위기종 2급이란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

* 비단벌레 또한 보호와 관리가 잘되어서 머지않은 시간에 비단벌레를 직접 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

글. 김양숙 회원기자 aesop4@hanmail.net

3월, 4월의 자연놀이

제비꽃 반지 만들기

봄이 무르익는 4~5월이면 길가나 산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제비꽃. 땅 가까운 곳에서 작고 여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비꽃은 성실과 겸손을 의미한다고 한다. 보랏빛 꽃잎이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모습은 마치 온 지구의 생명을 보듬고 있는 대지를 향해 수줍은 듯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 제비꽃을 발견하면 반지를 만들어 손에 끼우고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자랑하던 생각이 난다. 봄별 좋은 어느 날, 잠시 짬을 내어 아이와 밖에 나가 예쁜 제비꽃 반지를 만들어 손에 끼우고 제비꽃이 의미하는 성실과 겸손의 미덕에 대해 얘기 나누면 어떨까?

〈제비꽃 반지 만드는 방법〉

1. 예쁘고 튼튼한 제비꽃을 고른다.
2. 꽃받침 밑에 톱 튀어나온 일명 ‘꿀주머니’ 끝을 조금 뜯어내어 구멍을 만든다.
3. 제비꽃 줄기를 링 모양으로 둥글게 감아 줄기 끝을 꿀주머니 구멍에 끼운다.
4. 제비꽃 반지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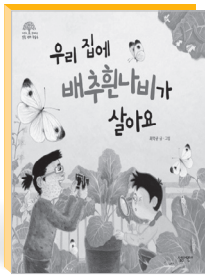
사진출처: 미니동아님 네이버 블로그



글. 정희 회원기자 whitny72@naver.com

함께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

이명덕 회원기자 cokid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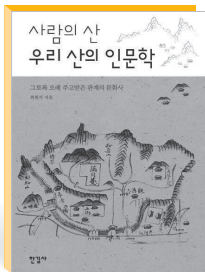


○ 우리 집에 배추흰나비가 살아요

최덕규 글·그림 / 살림어린이 / 2013년 8월

베란다를 생태학습장으로, 실제 배추흰나비를 키우며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과정을 엄마·아빠와 함께 직접 키워보고 싶어지게 하는 그림 안내서. 교과서에 실린 지식을 생활공간 안에서 아이가 자연을 접하면서 생생하게 체득하도록 그리고 있다. 선뜻 다가서지 않는 꿈틀꿈틀 애벌레가 흰나비가 되는 것을 아이와 함께 지켜보면서 생명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더 깊어지길 바라는 엄마·아빠의 마음도 느껴진다.

“아무 쓸모도 없는 벌레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이의 투정에 아빠가 놀라 말했어요. “나비 애벌레가 들으면 섭섭하겠는걸.”



○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 그토록 오래 주고받은 관계의 문화사

최원석 지음 / 한길사 / 2014년 8월

한국인에게 삶, 생활, 죽음에 이르기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산의 언어가 되어버린 풍수. 한반도 역사 구석마다 얹혀있는 명산문화. 자연의 산 생태의 산보다 역사의 산, 문화의 산이 되어버린 배경이 무엇일까? 산에 대한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 가서 보고 즐기는 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기원과 실체를 생각하게 하며, 저자의 말대로 우리 산의 문화사를 인문학적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쓴 책이다.

초 록 퍼 즐

© 출제 안민자 회원기자 amj138612@naver.com

	⑥		⑦			
①			②			
③⑧			④			
						⑨
	⑤	⑩				

가로

- ① 원래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 ② 산림이 헐벗은 것을 본 개척민들이 산림녹화운동을 전개한 것에서 유래된 나무 심는 날
- ③ 꽃을 피는 가게
- ④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수면에 웨이브가 생기는 현상
- ⑤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

세로

- ⑥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키우기 위하여 논밭에 씨를 뿌림.
- ⑦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듬은 후 나오는 찌꺼기나 남은 음식
- ⑧ 꽃이 피는 풀과 나무,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
- ⑨ 산에서 나는 나물
- ⑩ 깨끗하게 처리한 물

정답 보내실 곳 | FORESTFL@chol.com

정답을 보내주세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손수건을 보내드립니다.

③번의 첫 글자와 ⑨번의 첫 글자?

지난 44호 정답 : 호박

저들이 영원히 이 연못에서 살게 하소서!

- 개구리로 변한 농부들

“엄마,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태양의 신 아폴론의 아빠는 제우스신이잖아요. 그럼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는 레토 여신이야”

“제우스신은 헤라 여신과 결혼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제우스신이 사랑한 여인은 아주 많아. 그 중에서 온화한 성품의 레토 여신은 제우스와 사랑하여 아르테미스와 아폴론 쌍둥이를 낳았지. 레토 여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아주 옛날, 풍요롭기로 소문난 튀키아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레토 여신은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을 가졌을 때부터 헤라 여신에게 미움을 받았어. 헤라 여신은 온 세상에 명령하기를 레토 여신을 받아들이는 땅이 있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했어. 질투심 많은 헤라는 자신의 자식들보다 레토의 자식들이 더 위대하게 될 것을 알고 레토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했어. 헤라는 태양이 비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라고 저주를 내렸지.

아기를 낳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레토 여신을 받아주지 않았어. 방황하던 레토 여신을 받아 준 곳은 파도에 떠밀려 다니던 섬 텔로스였어.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텔로스 섬에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어. 이들 덕분에 레토 여신은 간신히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헤라 여신의 눈을 피하여 천신만고 끝에 쌍둥이 남매를 낳은 거지. 헤라 여신의 저주 때문에 레토 여신은 아기를 낳고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

태양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이었어. 쌍둥이를 안고 방랑하던 레토 여신은 튀키아라는 마을에 이르렀지. 레토 여신은 따가운 햇볕에 시달리며 먼 길을 온 테다가 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 너무나 목이 말랐지. 마침 계곡 아래쪽에 크기가 자그마한 연못을 발견했어. 연못가에서는 이 마을 농부들이 버드나무와 갈대 풀들을 꺾고 있었어. 레토 여신은 호숫가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려고 했어. 그런데 호숫가에 있던 농부들이 여신에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야. 레토 여신은 농부들에게 애원했어.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게 해 주세요. 나는 지금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농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레토 여신이 다시 물을 마시려고 하자 큰 소리로 욕박질렀어.

“이 물은 당신 같은 떠돌이가 마

시라고 있는 게 아니오. 어서 썩 저리 가시오”

레토 여신은 기가 막혀서 말했어.

“아니 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마시고 요긴하게 쓰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나도 이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물에 몸을 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걷는데 지친 다리를 담그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목을 축이자는 것뿐입니다.”

레토 여신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렇듯 가녀린 손을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우리 목숨을 살려주는 셈입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 해도 소용없소. 어서 저리 가시오. 그러지 않으면 봉변을 당할 것이오.”

농부들은 온갖 욕을 하면서 연못에 들어가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물을 휘저어놓기 시작했어. 맑고 깨끗했던 연못은 바닥의 찰이 올라와 금세 흙탕물이 되어 버렸지. 레토 여신은 비참하고 화가 나서 갈증도 잊을 지경이었어. 좋은 말로 애원한 자신을 후회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여신은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소리쳤어.

“간절히 바라오니 저들이 영원히 이 연못에서 살게 하소서!”

그 말이 끝나자 농부들은 갑자기 연못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 농부들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해엄을 치는가 하면, 또 연못가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다시 물로 뛰어들기도 했지. 마치 개구리처럼 말이야. 물을 마시지 말라고 온갖 비난을 해대던 농부들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가고 입은 옆으로 찢어졌어. 몸은 찢막하게 줄어들고 배는 부풀어 올랐어. 목도 사라지고 머리는 목 안에 틀어박힌 것처럼 달라붙었지. 그뿐 아니라 등은 초록색으로 변했고 몸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는 하얗게 변했대. 그러니까 진짜 개구리로 변해 버린 거야. 여신의 주문대로 개구리가 된 농부들은 물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대. 🐸





활동가에서 회원으로, 다시 활동가로 복귀하는 14년차 회원, 윤수연

2003년, 활동가로 생명의숲과 인연을 맺은 윤수연 회원. 생명의숲 회원운동을 거쳐 오랫동안 학교숲 운동에 열정을 다했다.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으로 파견되어 농산촌운동에 힘쓰며 전국을 누비다가 예쁜 두 딸 가온, 누리를 맞이한 육아휴직의 기간을 마치고 3월부터 생명의숲에 복귀한다. 앞으로 생명의숲 회원에게 자주 이름을 남기게 될 윤수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생명의숲에서 선배활동가와 전문위원을 비롯해 회원님들과 친구처럼 친근하게 지내기를 좋아했던(반말이 특기였던^^), 지금은 가온, 누리의 엄마로 조금은 철이든 윤수연입니다.

생명의숲 활동가로 7년, 회원으로 7년. 회원의 입장으로 바라본 생명의숲은

생명의숲 활동가로 출근길이 설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하러 생명의숲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라는 기다림으로요. 그때가 참 그립네요. 그리고는 하루하루가 바빴던 것 같아요.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고. 제가 느려서인지도 모르겠지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숲을 자주 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숲의 사계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낸 아쉬움도 있었지요. 온전히 회원이 되어서는 생명의숲 활동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마실 가는 마음으로 회원행사에 함께 하곤 했어요. 예전보다 시민참여 행사가 다양해지고,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활동도 많아진 것 같아요.

곧 스무 살이 되는 생명의숲, 이것만은 꼭, 회원들이 알아주길

생명의숲이 6살 되었던 해에 생명의숲을 알게 되었는데 그땐 6년이란 시간이 참 크고 길게 느껴졌어요.

지금 제 첫째 아이가 6살인데, 생각해보니 꼬꼬마였던 생명의숲이 이제 막 성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생명의숲이 나뭇의 색깔을 잃지 않고, 느리지만 천천히 숲운동을 통해 변화와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회원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당

연하지만 꼭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어느 순간 변하더라고요.

느려서 둔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빛깔이 안 보인다는 말도 있지만, 한 그루 나무가 크는 것처럼 느리지만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있으면서 언젠가 많은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늘과 싱그러움을 전해주는 생명의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생명의숲 신입 활동가로 제가 회원들과 만났을 때가 어찌면 가장 순수했고, 회원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며 활동했던 거 같아요. 음... 천진난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때 사귀었던 회원들은 지금 얼굴만 봐도 반갑고 기분이 좋아져요. 전, 앞으로도 회원들과 천진난만하게 만나고 싶은데, 잘 될까요?

천진난만 :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매우 순수하고 참됨

생 생이 다할 때까지

명 명분을 갖고

의 의로써 행하면

숲 숲이 되리라

윤수연, 잘 부탁드립니다! 🌲🌲🌲



△나무심기를 안내하고 있는 윤수연 활동가(우측)

생명의숲에게 : 회원, 하고 싶은 말.



방미인 회원 함께 건강히 세워나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같이 화이팅해요!^^



신신문 회원 많은 분들이 숲에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생명의 숲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채희정 회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푸른색으로 가꿔주세요~~



최희남 회원 숲은 우리 고유의 영속입니다. 우리나라가 숲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석 회원 늘 한결같은 생명의숲을 기대합니다.



우명원 회원 올해도 생명의 숲이 힘차게 살아 숨 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양현숙 회원 숲을 좀 더 많은 국민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숲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미정 회원 언제나 숲!!!



박경선 회원 늘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안은주 회원 오늘의 단순한 욕심보다 내일의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에 대한 건강한 욕심을 가진 생명의숲을 사랑합니다.



박재웅 회원 숲의 소중함을 더 널리 알려주세요!



김유리 회원 생명의숲 홈페이지 리뉴얼되어 좋아요. (짹짹!) 생명의숲 20주년 앞두고 '국민운동'이라는 단체명을 이제는 빼는걸 고려해보았으면 해요.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해석할 때 국민운동이 갖는 의미는 소위 관변단체의 색채가 강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생명의숲'이라는 4글자로도 단체 정체성을 올곧게 가져가도 좋을듯합니다. ^^



김순자 회원 자연을아끼는마음으로환경쪽에 도고민을많이해야할것같읍니다.



노순자 회원 서울 동네가 초록 숲으로 덮힐 때까지 생명의숲 활동이 왕성하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손승우 회원 숲이 있어, 숲과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세요. 도시에 숲 조성 (녹지) 의무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세요.



김진웅 회원 2G 휴대폰 사용자에게 인터넷 링크로 안내하시면 곤란합니다. ^^; 수고하세요.



임정현 회원 더 후원 못해 미안합니다. 계속 힘내주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심미숙 회원 생명의숲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바랍니다.



고동욱 회원 2만 회원, 해봅시다!



오명훈 회원 남북교류 대비한 숲복원전문인력 양성하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제 20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원님들께서 생명의숲에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

▲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수많은 영봉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전북, 전남, 경남의 3도를 아우르는 이곳 지리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주 코스로 유명하다. 지리산 중주의 출발점인 화엄사 입구에서 연기암까지 이어진 화엄계곡은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다. 특히 음이온 지수는 우리나라 최고다.

▲ 화엄사입구에서 약 1시간가량 오르다 보면 길 양쪽으로 대나무숲과 활엽수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연기암에 도착해보면 국내 최대의 문수보살석불이 우뚝 서 있다. 수험생들의 부모들이 합격 기원을 위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바람도 구름도 연기암에 머물러 섬진강을 내려다보지 않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이곳, 연기암은 아담하지만 천 년을 이어온 고찰이자 화엄사의 원찰(최초의 사찰)이다. 약 1,500년 전 백제 성왕 때 인도의 고승인 연기조사가 창건하여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가 1989년 종원선사가 복원하였다. 날씨 좋은 날이면 연기암에서 호남의 젖줄 섬진강이 바라보인다.

▲ 연기암에서 화엄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화엄사 바로 위에 위치한 구충암에서 차를 마시고 화엄사의 전경을 관람

하고 나면 주변에 유명 관광지가 많다. 매년 3월말이면 구례군 산동면에서 산수유 축제가 열린다. 산동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시목지가 있다. 4월 초에는 구례군에서 하동군으로 이어진 섬진강변 벚꽃길이 유명하여 쌍계사 벚꽃축제 시기에는 차량 행렬로 인산인해가 이어진다.

▲ 구례군 토지면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옥 ‘운조루’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타인능해(他人能解 : 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열어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운조루의 쌀뒤주)’의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전통으로 이어져 가옥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길로도 알려져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산 사성암에 오르면 섬진강을 품고 있는 구례의 전경과 마주한 지리산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움 봄을 맞이하여 1박 2일 내지 2박 3일 여정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숲체험과 힐링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곁들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례군청 홈페이지에서 해설을 신청할 수 있다. 🏠

글: 조길용 회원기자 jogy1202@gmail.com



교통

🚆 철도 구례구역(전라선) 도착하여 대중교통 이용

🚌 버스 구례군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대중교통 이용

🚗 자가용 익산 - 광양 고속도로 지리산화엄사IC를 빠져나와서 화엄사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전북생명의숲



△해밀숲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 중

이라는 뜻입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장애를 가진 분들과 숲에서 명상도 하고 놀이도 하며 하루를 보내면, 어둑어둑했던 얼굴들이 화사하게 피어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지곤 합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꼭 맞는 작명이라 생각되네요.

전북생명의숲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숲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밀숲>이라고 하죠. '해밀'이란 비가

온 뒤에 맑게 갠 하늘

"2016년 해밀숲을 진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원활동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힐링 되어 가지요. 11월 고창 선운사에서 빨강고 노랑고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부끄럼 없이 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거워하던 전주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고 그분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해밀숲을 진행해주신 숲해설가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해밀숲에 대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사)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의 회원들과 숲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숲에서 힐링하는 그날 까지, 전북생명의숲이 함께하겠습니다. 🌲🌲

글. 전북생명의숲 유지는 활동가

중앙 생명의숲 외에 전국 13개 지역 생명의숲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생명의숲은 숲치유 프로그램인 해밀숲, 숲생태아카데미, 섬진강 탐험대, 숲기행, 숲해설가전문과정 등의 활동을 시민과 함께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북생명의숲 ☎ <http://cafe.daum.net/isoup> ☎ 063-231-445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2길 59. 2층. 전북생명의숲

회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코너는 회원 여러분이 직접 <숲과 사람들>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숲과 사람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회원님만의 이야기, 생명의숲에 바라는 점, 궁금한 것, 소식지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 코너에 정성껏 실겠습니다.

회원의 소리. 몇 가지 짧은 예.

- 생명의숲, 다 좋지만 ~~~는 아쉬워요.
- 어제 친구들과 함께 남산숲길을 걸었어요. 아직은 춥지만, 봄기운이 느껴졌어요. 생명의숲 회원님들도 주말, 숲길에서 봄을 만나시길.
- 오늘 본 TV프로그램에 풍선덩굴이 나왔어요. 어떤 식물인가요?
- 3월에 결혼합니다. 축하해주세요!
- 요즘 공원에 가면 나뭇잎들이 누렇게 말라가요. 왜 그런 것인지 생명의숲이 알려주세요.
- (사진과 함께) 지난 호 자연놀이 보고 아이랑 함께 해보았습니다.

분량 : 1줄 문장부터 500자 이내로 자유롭게. 언제나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명의숲이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forestfl@chol.com / 카카오톡: '생명의숲' 친구추가 후 메시지

선물: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생명의숲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립니다.



건강한 숲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의숲은 회원과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꿉니다.

한 그루 나무가 되어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명단은 2017년 1월~ 2월 28일의 입금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모두의숲팀(02-499-6198)으로 연락주세요!

※ 계좌오류로 인해 회비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일의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

※ 명단에 회원님 이름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회비납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명단

유기산 (주)서림괴림(김미경)	가림가구학교(김성수)	김승탁	강경호	강광석	강교영	강금비	강동원	강동환	강미진	강민경	강부형
강서병	강선희	강수진	강숙경	강승희	강양호	강양하	강영진	강영진	강순하	강희원	강호순
강세진	강세진	강재선	강정화	강지혜	강진솔	강진형	강준근	강태희	강호비	강환보	강홍식
강희정	경현정	고 건	고경희	고대하	고동석	고선심	고수미	고영곤	고영삼	고유정	고은경
고태경	고현주	고현희	공강대화모임 (고현희)		공유택	공창형	곽노행	곽동훈	곽상준	곽세별	곽영미
구계우	구안나	구자일	구진영	권기홍	권노하	권동현	권보경	권순호	권준호	권우현	권은경
권준영	권자은	권현호	권혁진	권혜선	기경임	기다은	김건호	김해록	김기해	김건보	김경준
김경욱	김경욱	김경운	김경일	김경하	김경훈	김경희	김관식	김광수	김광숙	김관울	김귀희
김기원	김기현	김길배	김나영	김나식	김나희	김남기	김남진	김남홍	김남희	김대희	김덕년
김동철	김동하	김민희	김만홍	김말순	김명성	김명자	김명순	김명용	김명진	김명진	김명환
김미송	김미수	김미순	김미소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미정	김미정	김미희	김민진	김민자
김범주	김방선	김방철	김방희	김보현	김복례	김복선	김복숙	김상진	김상범	김상우	김상우
김서운	김석구	김석권	김석현	김석진	김신미	김신에	김신하	김신희	김신휘	김신휘	김신휘
김서만	김수성	김수성	김성일	김성자	김성진	김소연	김소현	김슬기	김수미	김수영	김수영
김순자	김순자	김순진	김순순	김순윤	김순자	김신범	김신의	김신호	김양숙	김양숙	김여선
김영국	김영기	김영록	김영미	김영미	김영선	김영선	김영일	김영중	김영진	김영환	김영환
김유현	김유수	김용각	김용경	김용석	김용석	김용순	김용진	김용표	김 우	김우찬	김우철
김유정	김유태	김윤균	김윤영	김윤정	김윤정	김윤현	김윤희	김은경	김은교	김은민	김은수
김은주	김은혜	김의경	김의향	김 인	김인애	김인호	김일석	김자영	김재준	김재현	김재홍
김정식	김정아	김정아	김정아	김정연	김정연	김정호	김정화	김정혜	김중근	김중록	김중하
김주영	김주환	김준아	김준환	김지관	김지미	김지원	김지현	김지혜	김진배	김진성	김진숙
김진중	김진형	김진희	김진희	김진희	김찬수	김찬숙	김찬주	김창배	김창환	김천규	김천숙
김준애(성심어린이집)		김준호	김지환	김택현	김태영	김태영	김태완	김태원	김태유	김태중(조은날)	김태진
김태주	김태하	김하늘	김학홍	김한동	김한석	김한수	김해영	김해성	김현숙	김 혁	김현기
김현희	김현탁	김형곤	김형미	김형성	김형수	김형진	김혜숙	김혜선	김혜선	김혜정	김혜정
김홍재	김한식	김효남	김효선	김효선	김 훈	김하나	김희발	김희순	김희영	김희중	꿈어린이집
나현숙	나현정	남정희	남정현	남수경	남은하	남은하	남태호	남여호	남영애	남국호	남대식
노은석	노은주	노준호	노하은	노희국	노수아	노재연	류경미	류경숙	류유상	류기환	류무열
류택규	마상규	맹진숙	모미숙	모연주	문봄이	문수인	문연희	문영규	문영남	문영진	문영진
문형봉	민경섭	민경옥	민경자	민경택	민규리	민덕홍	민병석	민소진	박기경	박 건	박경서
박근영	박관원	박광렬	박광민	박귀란	박근도	박나연	박노하	박동식	박동식	박동환	박두선
박미선	박미애	박미영	박민우	박병희	박보강	박복조	박보양	박상훈	박상규	박상길	박상길
박상진	박석원	박선식	박선영	박선희	박성관	박성동	박성현	박세영	박세정	박소연	박수연
박승혜	박시내	박이로이	박여수	박연정	박영미	박영부	박영석	박영수	박영우	박영운	박영일
박옥규	박용선	박용준	박원규	박유미	박유미	박유준	박윤정	박윤주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인옥	박인호	박인중	박인자	박지환	박재영	박재욱	박재현	박재환	박재숙	박정미	박정우
박종길	박종호	박종화	박종희	박주애	박주원	박주현	박준석	박준영	박준연	박지영	박지운
박찬은	박 철	박철욱	박찬성	박학숙	박현서	박현아	박형근	박혜란	박혜숙	박혜정	박홍철
박상진	방태림	방영미	방윤성	방윤수	방재수	배말금	배미경	배민경	배성남	배소연(김미라)	배 속
백국열	백상운	백선길	백순란	백운하	백윤식	백인석	백정희	백종철	백철기	백현석	변가혜
서근숙	서지원	서경진	서덕순	서동희	서문훈	서민정	서봉				

유영갑	유영규	유영민	유은지	유재승	유재심	유정아	유주희	유종하	유지영	유지웅	유지원	유진상	유해웅	유효중	윤 각	윤경혜
윤경희	윤광수	윤근식	윤남희	윤동열	윤말임	윤문선	윤병선	윤상우	윤서연	윤석분	윤석원	윤석자	윤선주	윤선희	윤세린	윤세원
윤숙연	윤순환	윤여중	윤여진	윤여창	윤연숙	윤영근	윤영미	윤영옥	윤영주	윤자영	윤자희	윤정노	윤정숙	윤정현	윤준민	윤지동
윤 진	윤 진	윤차중	윤준경	윤태우	윤태운	윤한별	윤현숙	윤혜영	윤혜정	윤희연	윤희연	윤영수	이갑순	이강명	이강민	이강세
이강오	이강현	이경두	이경란	이경미	이경민	이경수	이경신	이경아	이경열	이경주	이경학	이경훈	이경희	이경희	이교운	이광교
이광문	이국창	이근아	이기세	이기승	이기현	이기혜	이낙원	이난영	이대건	이대근	이덕근	이덕용	이도한	이도희	이도홍	이동열
이동우	이동준	이동철	이동춘	이동하	이동환	이두나	이득영	이 라	이 란	이리나	이만용	이만준	이명덕	이명동	이명섭	이명숙
이명진	이명채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이문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선	이미아	이미영	이민석	이민옥	이병합	이보미	이보연	이복만
이봉재	이상남	이상도	이상문	이상미	이상민	이상복	이상우	이상은	이상인	이상인	이상준	이상진	이상현	이상현	이상훈	이석재
이석현	이선경	이선길	이선주	이선주	이선화	이선희	이성아	이성우	이성환	이성희	이성희	이세영	이세현	이소리	이소민	이소연
이소희	이수경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수용	이수정	이수현	이순애	이순영	이순혁	이승담	이승미	이승연	이승은	이승준	이승준
이승준	이승호	이승희	이아라	이양구	이연옥	이연원	이연희	이 영	이영미	이영애	이영의	이영주	이영희	이예숙	이영구	이영권
이홍수	이홍식	이홍식	이홍훈	이우상	이원덕	이원미	이원숙	이원숙	이유정	이윤승	이윤정	이윤정	이윤리	이은기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순	이은애	이은옥	이은진	이은하	이은렬	이인선	이인숙	이일남	이임덕	이장춘	이재봉	이재석	이재성
이재식	이재영	이재영	이재원	이재원	이재준	이재진	이재하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식	이정아	이정우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갑	이종필	이종민	이종섭	이종원	이종원	이종호	이주식	이주연	이주현	이주현	이주현	이주희	이준기	이준우	이치연
이지연	이지열	이지영	이지우	이지현	이지현	이지현	이진구	이진규	이진명	이진석	이진숙	이진숙	이진연	이창복	이창준	이철우
이철재	이춘선	이춘희	이춘희	이춘희	이춘선	이태석	이태제	이태제	이학숙	이한구	이한규	이한신	이행중	이향란	이향미	이향배
이현경	이현숙	이현아	이현일	이현호	이형준	이혜민	이혜성	이혜수	이혜영	이혜영	이혜지	이호연	이호영	이호일	이환구	이효수
이희수	이희진	인은수	인창혁	임건용	임경숙	임경철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대성
임상준	임상희	임상은	임성주	임성진	임성후	임수현	임영선	임옥남	임원택	임월연	임은미	임재훈	임정현	임정현	임종길	임종수
임종필	임종환	임종백	임지연	임평식	임현철	임형목	임형진	임혜주	임효진	장광은	장대익	장 만	장미아	장석재	장순우	장성남
장영진	장영주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영철
장태수	장태혁	장학영	장한빈	장형남	장호찬	전경순	전계명	전국환	전미경	전병윤	전선영	전숙례	전순복	전영배	전영완	전영훈
전용관	전용훈	전유경	전은주	전의찬	전인하	전재숙	전지연	전지현	전지호	전지희	전필수	전현주	전현남	전강훈	전경숙	전경희
전고은	전구갑	전구석	전규연	전달문	전대원	정 란	정란아	정래영	정만금	정명숙	정명희	정미나	정미나	정미라	정미선	정미순
정미아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민채	정병준	정복철	정선희	정성문	정성재	정세영	정승남	정수옥	정순화	정순희	정순준	정애숙
정애자	정양희	정영란	정영옥	정영일	정영진	정예린	정옥연	정용록	정용숙	정용호	정유민	정유진	정은수	정은연	정은희	정재규
정재영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재훈	정주열	정주영	정지숙	정지용	정진영	정진영	정찬명	정찬미	정철호	정태성	정택진
정하은	정 희	정희준	정현진	정혜주	정희숙	정효진	정 희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정희정
조규식	조금식	조금희	조동길	조민희	조명자	조명현	조복남	조사인	조석호	조성호	조성호	조성호	조성호	조성호	조성호	조성호
조영래	조영미	조영선	조영중	조영천	조영철	조영희	조옥천	조용진	조운연	조유환	조윤숙	조은빛	조인규	조재형	조정운	조재형
조준영	조천수	조찬희	조지훈	조한숙	조한식	조해영	조현자	조호석	주경희	주만석	주복희	주영랑	주원혜	주은옥	주중원	주창호
주형선	주혜린	지귀현	지나자신	지유영	지원희	지인구	지후자	진문석	진상현	진우석	진우석	진우석	진우석	진우석	진우석	진우석
차윤정	차은주	차은지	차준희	차지철	채수명	채수진	채 일	채현순	채희옥	채희정	천각규	천경화	천유정	천향미	천희경	최석택
최파교	최아동부	최건애	최경아	최근홍	최명은	최문선	최미숙	최미자	최미향	최민수	최병걸	최병연	최상규	최상수	최상애	최성택
최재희	최소영	최소현	최수진	최수경	최수경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수진
최영준	최영희	최영환	최예진	최용석	최용준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용희
최재민	최재숙	최정원	최지영	최지원	최진수	최진숙	최진현	최찬순	최찬성	최태분	최태영	최하연	최해정	최희미	최희미	최희미
최현식	최현수	최현정	최현준	최호연	최희진	추은영	추지희	태유리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한경서
하정민	하지수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하태식
한순아	한은주	한재숙	한재현	한재호	한정숙	한정민	한정영	한주옥	한진규	한태이	한현주	한혜경	한희선	한순애	한지영	한형복
함희숙	허근행	허상만	허안숙	허윤규	허진경	허학영	현경호	현승업	현유진	현정오	현정훈	현준식	현철호	홍경자	홍대원	홍상기
황석권	홍진기	홍석두	홍성권	홍성민	홍성숙	홍소현	홍수자	홍순동	홍윤정	홍인숙	홍정순	홍중숙	홍찬희	홍하표	황경택	황규현
황길진	황동규	황득희	황명규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명숙
황지현	황준우	황준호	황치애	황해경	황효심	황희정										

연남부회원

강대찬	강석철	곽정수	구금순	김광호	김근용	김동섭	김무창	김신아	김성열	김성택	김영숙	김영조	김윤기	김인석	김주현	김지한
김한담	김형규	김혜정	김홍연	남은택	문 인	문현재	박경숙	박근우	박문한	박문환	박백범	박상연	박순옥	박용희	박원철	박윤정
박재달	박현태	박혜영	박혜영	박호진	배용래	백승주	백주열	서경석	서백영	서승진	신경희	신서희	신은희	안순례	안원철	엄명숙
예건희	유근옥	유병배	유종아	유종호	유태환	윤상구	유태병	이경숙	이경원	이경재	이돈구	이미정	이미정	이봉교	이선주	이성숙
이성우	이성일	이소령	이숙희	이순아	이순주	이영재	이용상	이용섭	이임영	이재룡	이정화	이종각	이창국	이충미	이현호	이희삼
임혜미	임홍순	장미령	장성환	장진호	장평식	장현수	전혜민	정승선	정완봉	정현주	조민환	조영숙	조홍연	주용석	천문식	최규복
최돈하	최상술	최성원	최승민	최영택	최은숙	최재영	최창진	표병혁	한경수	한국양묘협회	홍보영	황신애	황영심	황종각	황지숙	

기업회원

(주)국필코리아 (주)랜드아기생태조경 (주)비코트립 (주)신홍이앤지 (주)에코팜 (주)월송나무병원(김철음) (주)풀무원 (주)해남솔루션 머스틴(박보강) 법무법인 청목 알앤비코(RNBco) 우신건업(주) 유한킬블리 일송환경복합(주) (주)대명화학 (주)동심원조경 (주)스프로 주식회사지엔푸드 (주)유한양행

평생회원

서두일 권상진 김경일 김성훈 김인식 김정균 김준근 김태진 노만경 노영희 문국현 박미호 박석익 박창준 박필진 배상원 서현중(진원스님) 송승우 신문수 엄대식 우종민 윤영각 이동진 이득우 이명주 이선민 이원화 이재현 임원준 전영우 전정일 정진호 조연환 조용성 조효봉 한경식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 12월~2월 회비 증액해주신 _복종경, 서은주, 박상인, 민병석 회원님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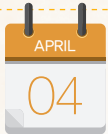
2017년에도 생명의숲을 통해 일상에서 숲을 만나세요!



제20차 정기 회원총회
일시_ 3월 9일
장소_ npo 자원센터
대상_ 생명의숲 회원
내용_ 활동 및 예결산 심의, 의결

초록산책단 2기 양성과정
일시_ 2월 2일~4월 20일
장소_ 서울시청 및 서울역 인근
대상_ 시민
내용_ 서울역 인근 역사 및 수목관리 교육

남산 시민참여 나무심기
일시_ 3월 25일(토)
장소_ 남산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소나무 심기



공존숲 나무심기
일시_ 4월 1일(토)
장소_ 대전/김천/충주 공존
대상_ 유한킴벌리 지역공장 임직원
내용_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성마산 숲 속 생태체험 교실
일시_ 4월~10월(매주 목)
장소_ 성마산 일대
대상_ 유아~성인
내용_ 계절별 숲해설, 자연놀이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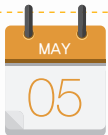
키엘 모퉁이숲 나무심기
일시_ 4월 중(미정)
장소_ 미금역 인근
대상_ 지역주민
내용_ 나무심기

시니어산촌학교 3기
일시_ 4월 25일 입학(매주 화/목)
5월 27일 졸업
장소_ 국립산림과학원
대상_ 시민(시니어)
내용_ 귀산촌 입문교육

숲문화아카데미 1강
일시_ 4월 중
장소_ 남산 및 후암동 일대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현장강좌
(남산 성곽길~후암동 골목길 숲을 만나다)

성마산 숲가꾸기 자원활동
일시_ 4월 8일~10월 28일(매주 토)
장소_ 성마산 일대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시민 참여 숲가꾸기 활동
(야생화 씨앗 파종,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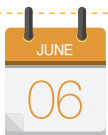
세계평화의숲 나무심기
일시_ 4월 중
장소_ 세계평화의숲
대상_ 영종도 주민 및 회원
내용_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회원 숲기행
일시_ 5월 중 토(당일)
장소_ 미정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숲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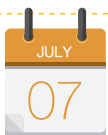
숲문화아카데미 2강
일시_ 5월 말
장소_ 양재시민의숲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현장(음악감상)

세계평화의숲 봄축제
일시_ 5월 중
장소_ 세계평화의숲
대상_ 영종도 주민 및 회원
내용_ 사생대회, 백일장, 체험부스



회원 소풍데이 2
일시_ 6월 중 토
장소_ 남산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숲가꾸기 자원활동

숲문화아카데미 3강
일시_ 6월 중
장소_ 올림픽 공원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현장강좌(사진촬영)



남산 숲 여름학교
일시_ 7월 24일~25일
장소_ 남산
대상_ 회원 및 시민
내용_ 청소년 숲가꾸기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5 숲센터 5층 02-735-3232

홈페이지 www.forest.or.kr | **메일** forestfl@chol.com | **블로그** forestforlife.tistory.com

페이스북 /forestfl | **카카오톡** '생명의숲' 친구추가

발행처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생명의숲 회원기자단** 정혜(단장) 김강숙 류준희 백선길 심미숙 안민자 이상권 이명덕 조길용 **지문** 유명민 생명의숲 사무처장